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김동훈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사계절 중 5월의 포근한 봄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가 마련되었다. 110개의 국정과제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제시되면서 산업안전보건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무척 크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분야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인간의 삶이 편리함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늘 유해하고 위험한 인자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일터에서 작업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은 궁핍해지고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숨 쉬는데 지장을 받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국가가 강력한 안전보건 규제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그 못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을 5년간 줄이겠다고 각종 규제며 강력 처벌과 인적·물적 자원을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많이 투입했음에도 그 결과물은 너무나 미미한 실정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사이에서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건강하고 편안하며 산업현장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쾌적한 작업 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많이 확산된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 투입과 자원 투입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우리 산업안전보건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현장에서 작동가능하면서 지금까지의 산업재해예방 방식을 조금씩 탈피해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재해예방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그날을 위해서 산업재해예방분야에 대한 제언을 윤석열 정부에게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어도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인 책임만 부여되었으나, 산업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관여자 모두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정부와 사업주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노조 간의 갈등 등으로

지금까지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어도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인 책임만
부여되었으나,
산업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관여자 모두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널리 보기

: 새 정부에게 바란다



작업 일터에서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을 가져왔는가? 이제는 산업현장의 참여자 모두 즉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도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산업현장의 환경조성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 가지 예로 경기도 이천물류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질식 사고로 2008년과 2020 년도에 수십 명의 고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것처럼 사업장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가 함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련 법과 제도, 지침 등이 무수히 생산만 되어 왔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현장 환경에 부합되게 대정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강력한 안전보건 규제 및 지원 정책 시행에도 좀처럼 산업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포함)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법과 제도가 생산되고 있다. 이제는 일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적인 제도의 정비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안전보건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안전보건산업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련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자 중심보다는 정부 부처며 공공기관별로 다원화되고 분산되어 집행 운영되고 있는 공급자 중심이다. 안전보건 제도와 집행을 일원화하고 안전보건산업과 예방기술, 제도, 안전보건 용품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 지원 발전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안전보건 제도와 집행을 일원화하고 안전보건산업과 예방기술, 제도, 안전보건 용품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 지원 발전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으로 조직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련 단일 부처가 필요하다.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으로 조직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련 단일 부처가 필요하다.

넷째, 복잡한 산업현장의 변화와 기술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대응과 근원적 유해위험관리 시스템, 공급망 안전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설계단계, 공급망 등 근원에서부터 효과적인 유해위험관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별로 포괄적이고 융복합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IoT 등 첨단 융복합기술개발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사회기술 융복합 시스템에 대응한 안전보건 전문가 역량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회기술 시스템적 위험관리 역량 대응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설계·평가·개선 등 전문가 역량 확보를 통해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국가 안전보건 전문가 역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